

하늘문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늘문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평남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같은 교단에 영락교회, 새문안교회, 소망교회 등이 있습니다. 같은 노회에 주님의 교회, 온누리교회 등이 있습니다.

1. 등록안내 : 하늘문교회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을 통해 등록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오늘 주일 낮예배 시간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오늘 점심은 김도향 권사님 가정에서 섬겼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 점심은 임명희 권사님 가정에서 섬깁니다. 다음 주일 2부 낮예배 대표기도는 이희문 집사님입니다.
4. 2024년 '필리핀 보호 단기선교' 공동물품 구매를 위한 물품바자회가 이번 주부터 매주 마다 가집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 꼭 들리셔서 섬겨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5. 2024년 '필리핀 보호 단기선교'를 위한 모임이 주일오후예배 후에 계속적으로 가집니다. 참가자는 빠짐없이 전원 참석바랍니다.
6. <하늘문의 만나> 6월호가 본당 뒤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수량만큼 가져가셔서 묵상용-전도용으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담임목사동정: 담임목사님은 6월 4일(화) 강북시찰 당회원 수련회 참석합니다.

SERVICE FOR WORSHIP 예배를 위한 섬김

담당 \ 날짜	6월 2일	6월 9일	6월 16일	6월 23일
예배기도(2부)	이준화 집사	이희문 집사	김종영 집사	김수환 장로
예배기도(오후)	인도자			
식사담당	김도향 권사 가정	임명희 권사 가정	필리핀 단기선교팀	임문희 권사 가정

하늘문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제목

1. 가정과 교회,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2. 환우들을 위해서
3.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등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4.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에이미 양 선교사님(U국)과 신완호 선교사님(몽골), 다문화 사랑의 십티(함안), 예수교회(대구), 두리원(장애인 복지시설) 사역지와 사역을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매일 기도 부탁 드립니다.

하늘문 교회 사명선언문

우리는 예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교회와 세상 가운데 예수향기로 살게 하며 하늘과 세상을 감동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늘문 교회 비전

- *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와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 * 사랑으로 하나된 행복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믿음으로 다름과 분열이 아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 * 다음세대를 향한 꿈을 디자인하는 교회
신앙의 대를 잇도록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하며 믿음으로 부모들과 함께 기도하며 더 큰 비전을 품고서 세계를 꿈꾸는 다음세대를 세우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지역사회를 섬기며 문화를 이끌어 가는 교회
예향카페, 미니도서관, 문화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며 교회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문화를 공유하며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열방을 품고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을 지향합니다.

■ 찾아오시는 길



섬기는이 ■ 부목사: 구은세 ■ 협동목사: 김전희 ■ 전도사: 박일선, 김진규
 ■ 시무장로: 유중열, 박성근 ■ 협동장로: 김운식, 윤형근 ■ 은퇴장로: 신태식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문의전화 : 031-595-1534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2536
 (우)12192



HANEULMUN'S Happiness

하늘문교회 행복초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존귀하게 자신의 삶을 발견하며 삶의 행복을 찾도록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허영진
 Pastor Young Jin Hur

1부(오전 9:30), 2부(오전 11:00)

인도 : 허영진 목사

예배로 나아감

*예배로 부름	인도자
*성경독	교독문 13번(시 23:1-6) 다같이
*경배찬송	10장(통 34장) 다같이
*참회기도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양과 기도

찬송	369장(통 487장) 다같이
대표기도	1부인도자, 2부이준화 집사

봉헌과 말씀

성경봉독	요 21:1-5 인도자
자녀를 위한 기도	허영진 목사
봉헌기도	인도자
말씀선포	‘후회 없는 인생’ 허영진 목사
기도	허영진 목사

성례전

권면	집례자
제정의 말씀	집례자
성찬참여	다같이
성찬후기도	집례자

친교와 축복

교회소식	인도자
*결단송	620장 다같이
*축도	허영진 목사

(*는 일어섭니다)

이달의 말씀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와 말씀하기를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신명기 30장 8, 11절

◆헌금은 들어오시기 전, 준비된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1:30

인도 : 박일선 전도사

경배와 찬양	찬양인도: 청년부 다같이
여는기도	인도자
특별찬양	누구든지
성경봉독	마 5:45 박일선 전도사
말씀선포	‘이중적인 사랑’ 박일선 전도사
기도	박일선 전도사
교회소식	인도자
결단찬송	304장(통 404장)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WEEKLY WORSHIP 주중예배

수요일 예배 저녁 7:30 사복음서 강해 허영진 목사
마 17:22-23 ‘십자가의 참된 의미’

금요일 기도회 저녁 9:00 기도를 논하다 허영진 목사
‘올바른 과녁을 향한 기도’

새벽기도회 새벽 5:30 <하늘문인만> 말씀묵상 허영진 목사
(월~금)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온 맘 다해 드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다시금

어느 듯 계절의 여왕인 5월도 여름의 전령인 6월에 자리를 내주고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 흐릅니다. 내릴 것만 같았던 비는 내리지 않고, 찌뿌듯했던 몸이 기억하고서는 내내 천근의 무게가 내리 누르는 것만 같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그동안 미루었던 운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가까운 곳에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운동할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지만, 일전에 받은 팔 수술을 핑계 삼아 그만 뒀었습니다. 그러다 심기일전해서 새로 시작한 운동 맛에 제법 즐길만합니다. 스치며 지나가는 이름 모를 꽃냄새도, 지나치며 만나는 이들과의 눈인사도 덤으로 얻게 되는 흥겨움입니다. 다만 제발 작심삼일이 되지 않으면 좋으련만...

우리는 살면서 자기 자신과의 수없는 약속을 합니다. 이른바 결심입니다. ‘결심’은 사전적 의미로 ‘어떻게 하기로 자신의 뜻을 확고히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자기와의 약속이자 무언가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자신과의 약속이행입니다.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적기에 당장은 큰 탈이 없을 거라는 자기 합리화가 끊임없이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또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만큼 지루하고 외로운 싸움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과의 약속이 몸에 밴 ‘습관’으로 정착되기만 한다면, 결코 어려운 일만은 아닙니다.

‘습관’이란, ‘반복되는 그 무엇을 기억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새벽 5시면 일어나는 것이 습관화된 사람은 알람시계가 울리기도 전에 눈을 뜹니다.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는 말을 하는 사람은 독서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을 넘어 이미 그는 매일 책 읽는 습관이 몸에 밴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도 습관을 좇아서 새벽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순종의 길을 달려가신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자기통제를 주님께로 향하는 믿음을 끝까지 경주해야 합니다. 운동하기 좋은 계절에 다시 운동을 시작하듯이, 습관을 좇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Written by 허영진